

##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1962)에 나타난 멕시코혁명의 변이 과정

박 구 병  
서울대학교

Park, Koo-Byoung. (2002). Carlos Fuentes' *The Death of Artemio Cruz* (1962)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Mexican Revolution. *Revista Iberoamericana*, 13, 91-115.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erioration of Mexico's "Permanent Revolution" since 1910 particularly in the light of Carlos Fuentes' novel, *The Death of Artemio Cruz* (1962). The novel pursues a dramatic life of Artemio Cruz, an illegitimate child and former revolutionary officer turned millionaire, in reverse order. Cruz aptly took advantage of a whirlpool of the revolutionary decade to lift up his social status and acquire an immense fortune. In a sense, the whole trajectory of his life from the humble origin in Veracruz to a wealthy and powerful position in Mexico City reminds us of the path of the Spanish *conquistadores* (conquerors) in the early 16th century who invaded the Mexican territory for gold, a symbol of avarice. Throughout his career after the revolutionary decade, Cruz committed all sorts of fraudulent misdemeanors while sacrificing the moral value of the Mexican Revolution for his survival and self-interest. Consequently the Revolution was betrayed and even dead.

As exemplified in a popular title "the Mexican Revolution, 1910-1940," many of previous works have claimed that after 1940, "the pivotal year," the Mexican Revolution began to modify its preceding radical orientation represented by the Lázaro Cárdenas presidency (1934-1940). However, Cárdenas' period already demonstrated dual qualities of being both revolutionary and conservative, that I believe were markedly reflected in the formation of the official party named the PRM (*Partido de la Revolución Mexicana*), which eventually evolved into the 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in 1946. In other words, the Cárdenas

presidency showed its transitional feature from radical reform politics to moderate real politics over time,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one-party dominant system and the state-managed economy that would last for the next several decades.

Based on these statist policies, Mexico's "institutionalized Revolution," coincided with the "Mexican Economic Miracle," since the mid-1940s created numerous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ontradictions. Prior to 1968, when student-popular resistance was at its peak and the tragic Tlatelolco massacre took place against demonstrators, the Mexican Miracle was premised on the model of stabilizing development with an active involvement of state. While keeping up high industrial growth and low inflation, this developmental pattern tended to aggravate social inequality and weaken the agricultural sector. Authoritarian practice and growing corruption of the ruling party and the state machine also corroded popular belief in the so-called institutionalized Revolution. The hegemony executed by the official ideology of the Mexican Revolution was already being undermined before 1968, for instance, in Stanley R. Ross' edited monograph, *"Is the Mexican Revolution Dead?"* (1966).

It should be noted that Carlos Fuentes skillfully narrates the death of the Mexican Revolution by way of Artemio Cruz's theatrical life from 1889 to 1959, several years before the tragedy at Tlatelolco that epitomized bankruptcy of the institutionalized Revolution. For Fuentes, Cruz is a representation of the Revolution itself and Cruz's opportunist career for his self-interest stands for the betrayed and broken Revolution by the new ruling class.

## I. 서론

10년 내 멕시코에서는 격렬하고 전면적인 혁명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낡은 정파들의 쓸모 없는 투쟁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혁명일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막진 못할 것이다. 마치 땅 밑에서 지각변동을 준비하는 거대한 폭발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혁명을 예고하는 힘은 점점 커지고 있다.<sup>1)</sup>

1) Sebastián Lerdo de Tejada, *Memorias* (México, D.F., 1896), 148-149쪽, Helen Phipps, *Some Aspects of the Agrarian Question* (Austin: The University of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의 쿠데타로 실각한 전임 대통령 세바스띠안 레르도 데 테하다(Sebastián Lerdo de Tejada)는 1889년 망명지 뉴욕에서 그렇게 예견한 바 있다. 독재자 디아스는 자신의 체제를 레르도 데 테하다의 예측보다는 10여 년 정도 더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 멕시코에 혁명이 다가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1910년 11월 프란시스코 마데로(Francisco Madero, 1873-1913)의 산 루이스 포토시 강령(Plan de San Luis Potosí) 발표로 촉발된 멕시코혁명은 최소한 향후 10년 간 멕시코 대부분의 지역을 휩쓴 대격변이었다. 마데로는 오랫동안 디아스의 독재 체제로부터 배제되었던 북부 지방의 아센다도(hacendado)와 중간계급의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을 대표했는데, 그의 투쟁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반란의 회전 목마”<sup>2)</sup>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저항, 특히 에밀리리아노 사파타(Emiliano Zapata, 1879-1919)를 주축으로 한 중부 모렐로스 공동촌락민들의 봉기와 결합하면서 포르피리아또(porfiriato)<sup>3)</sup>뿐만 아니라 적어도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이어진 멕시코 정치의 자유주의적 전통까지 뒤흔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10년에 걸친 유혈 투쟁은 진보적 성향의 ‘1917년 헌법’을 탄생시켰고 뒤이어 ‘혁명의 제도화’로 귀결되었다. 이른바 ‘소노라 왕조’(1920-1934)와 라사로 가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재임 1934-1940)의 개혁정책을 통해 멕시코에선 아시엔다(hacienda) 중심의 대토지 소유제와 채무노예제가 해체되기에 이르렀고 특히 가르데나스의 혁명적 민족주의의 고양과 대중 포섭 정책은 국가주도의 민중주의적 정치·경제 체제의 기틀을 다졌다.

이러한 멕시코혁명의 시대구분과 성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혁명을 1910년부터 194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사건으로 파악한다. 집권 제도혁명당(PRI)의 후보 루이스 에체베리아는 심지어 ‘플라멜 롤코 학살’이 일어난 뒤인 1969년 11월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때때로 “영원한 혁명”이라고 불리기

---

Texas Press, 1925), 131쪽에서 재인용.

- 2) Fernando Mires, *La Rebelión Permanente: Las revoluciones sociales en América Latina* (México, D.F.: Siglo veintiuno editores, 1988), 158쪽.
- 3) ‘포르피리아또’는 디아스의 집권기(1876-1911)를 지칭하는 일종의 시대 개념인데, 이 한 세대 동안 멕시코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젊은 사회로부터 완고한 구식” 과두 지배 체제로 변모했다. John M. Hart, *Revolutionary Mexico: The Coming and Process of the Mexican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353쪽.

까지 하는 20세기 멕시코의 대격변은 시기적으로 러시아혁명을 앞서며, 기존체제의 파괴란 측면에서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에 못지 않다. 혁명의 선도자 마데로가 자유주의적 이상을 펼치지 못한 채 디아스 추종 세력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1913년 2월 이후에는 쿠데타의 주역 빅토리아노 우에르타(Victoriano Huerta)에 맞서 여러 세력의 무장 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고 1914년 중반 우에르타의 퇴장과 연방군의 해체 이후에는 다양한 혁명 분파 간에 “승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이 각축은 적어도 1920년까지 치열하게 지속되었는데, 여러 연구자들은 혁명 세력의 요구사항을 집대성한 1917년 헌법의 제정, 또는 1920년, 더 나아가 1940년까지를 혁명기로 설정하고 1920년 이후 시기를 그 이전의 군사적 국면과 구별되는 “제도화 국면”으로 규정한다.<sup>4)</sup> 달리 말해 1910-1920년의 시기가 각 지역의 실력자들이 대중 동원과 직접 투쟁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고자 경쟁하는 단계라면 1920년 이후는 권좌에 오른 혁명 세력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요구를 선택적으로 포섭하면서 이른바 ‘혁명 가족’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안정화 국면인 셈이다. 여기서 필자는 1910-1920년의 군사적 국면을 혁명기로 설정하고, 1920년 이후의 “제도화 국면”은 혁명 후 체제의 변화로 규정할 것이다.

또한 이 대격변의 성격에 대해서도 대반란, 사회혁명, 중앙집권적 혁명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적극적으로 혁명에 참여한 세력이 편차를 보이면서 어느 곳에서는 농민(*agrarista*)혁명으로, 다른 곳에선 산지인(*serrano*)혁명으로 규정되기도 한다.<sup>5)</sup> 고전적인 해석에 따르면 무엇보다 멕시코혁명은 민족주의적, 농민운동적 성격이 강한 아래로부터의 사회혁명이지만, 수정주의적 접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정치운동 혹은 다양한 색채를 띤 여러 지역의 저항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몇몇 연구서들은 디아스 체제와 혁명 후 체제가 지닌 공통적인 특성, 다시 말해 정치·경제적 중앙집권의 강화라는 점에 주목하여 혁명이 단지 이러한 경향의 일시적 공백기였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sup>6)</sup>

4) Michael C. Meyer & William L. Sherman, *The Course of Mexican History*,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Jean A. Meyer, *La revolución mejicana, 1910-1940* (Barcelona: DOPESA, 1973), 9쪽.

5) Alan Knight, *The Mexican Revolution: Vol. I. Porfirians, Liberals, and Peasa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301-309쪽 참조. Alan Knight, “La Révolution Mexicaine: Révolution Minière ou Révolution Serrano?” *Annales-E.S.C.* 38 (2), 1983, 449-469.

이러한 견해에 주목하면서 이 글에서는 저명한 소설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1962)에 나타난 멕시코혁명의 파노라마와 그 변모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28년생인 푸엔테스는 199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와 더불어 현대 멕시코 문학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 속에서 그는 아르테미오 크루스란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멕시코혁명의 의미를 그려내고 있다. 다음 장에선 푸엔테스가 그린 크루스의 삶과 멕시코혁명의 변이 과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소설 속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제4장에선 1940년 이후 “제도화된 혁명”의 진행과 멕시코 정치의 방향 전환이 어떤 경로를 거쳐 혁명의 종말로 귀결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 II.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혁명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은 1959년 71세의 아르테미오 크루스가 병상에 누워 고독하게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죽음을 눈앞에 둔 외로운 크루스의 현재로부터 시작하여 푸엔테스의 소설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크루스의 과거로, 과거로 독자들을 인도한다. 이 소설 속에서 “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현재의 크루스, 독백의 대상인 “너”는 크루스가 되고자 원했던 존재, 그리고 “그”는 레히나, 곤살로 베르날, 가말리엘 베르날, 까딸리나, 로렌소, 라우라 등 여러 연인, 친구, 상관, 자식을 만나고 헤어졌던 과거의 크루스를 의미한다. 독특한 서술 구조 속에서 독자들은 크루스의 과거 성찰과 고백을 통해 결국 과거로부터 점점 더 방향을 상실한 그의 현재를 만나게 된다. 크루스의 비서 빠디아는 때때로 녹음테이프를 들려주면서 그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되돌아보며 여러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182cm, 79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크루스, 이탈리아제 실크 셔츠와 커프스 단추를 수집하고, 뉴욕에서 주문한 넥타이를 매고 고급

6) David C. Bailey, “Revisionism and the Recent Historiography of the Mexican Revolution,”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58 (1), 1978, 78쪽. Barry Carr, “Recent Regional Studies of the Mexican Revolutio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15 (1), 1980, 7-8쪽.

담배를 피우며, 꼬요아칸(Coyoacán)의 대저택에 크리스탈 술잔들을 준비하게 갖춘 꼬루스의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신문사를 비롯하여 멕시코시, 뿌에블라,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콜리아칸, 에르모시오, 과야마스, 아카풀코 등지의 부동산, 할미판의 유향천, 이달고의 광산, 라따라우마라의 목재개발 이권, 호텔 체인, 파이프 제조공장, 금융기관, 미국 회사의 법정 대리인 급료, 철도공채 관리 이익금, 신용기관 자문역의 급료, 외국기업의 주식, 쥐리히, 런던, 뉴욕 등지 은행에 예치해 둔 1,500만 달러의 현금.<sup>7)</sup>

꼬루스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았을까? 그의 엄청난 재산 목록은 한마디로 혁명의 소유물들이 제공한 선물이었다. 꼬루스가 디아스 시대 베라 꼬루스의 실력자 아파나시오 멘차카와 몰라또 여인 이사벨 사이의 사생아로서 아시엔다에서 평생 빼온(채무노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변신은 더욱 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파스의 표현을 빌자면 백인 남성의 원주민 여성에 대한 능욕과 정복의 산물인 “칭가다(chingada)의 자식”<sup>8)</sup> 꼬루스는 혁명의 우여곡절 속에서 결정적인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감옥에서 최고 사령관 베누스티아노 까란사의 전령 곤살로 베르날을 만난 뒤 꼬루스는 그의 배경에 대해 알게 되고 배신의 길을 걷는다. 베르날은 파당으로 변질된 혁명 가담자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그에 따르면 혁명이란 민중을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었다. (255) 베르날은 까란사가 혁명을 분열시켰고 혁명을 당파 싸움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한탄했다. (257) 하지만 꼬루스는 1915년 10월 판초 비야 부대의 사갈 대령과 빼랄형무소에서 결투를 벌여 승리하고 베르날 가문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다. 꼬루스는 생존을 위해 교묘한 수단을 써서 결국 베르날의 누이와 혼인하고 아센다도 가문인 처가의 재력을 활용하여 혁명전쟁이 끝난 뒤에도 재산을 늘려 간다. 혁명이 끝날 무렵 뿌에블라의 농민들을 상대로 한 단기 고리대금업, 부동산 투기,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한 멕시코시 내 토지 분할, 광산주식 매입, 미국 투자자들의 심복 노릇, 시카고와 뉴욕, 멕시코 정부를 연결해 주는 중개인 역할, 증권시장 조작, 농민들로부터 공유지 탈취, 목재개발 이권 획득, 위장 파산행위, 통화 평

7) 카를로스 푸엔테스 (김창환 역), 『아르메미오의 최후』 (서울: 지학사, 1987), 21-22 쪽. 이후로는 본문 괄호 속에 쪽수 표시.

8) 옥타비오 파스 (손관수 역), 『고독한 미로』, (서울: 신원문화사, 1990), 86쪽.

가절하 사전 누설, 어음할인을 통한 차익, 공공사업비 과다 계상, 비리와 배신, 권력 남용 등이 꼬루스의 치부를 위해 동원된 수단이었다. (22)

꼬루스가 처음부터 현실적인 목표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었다. 1913년 까란사 휘하의 입헌과 부대에 합류한 꼬루스는 곧 장교가 되었고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혁명 기간 동안 용감히 싸웠다. 하지만 그동안 그의 이상을 사랑했던 여인, 아마도 그가 유일하게 사랑을 느꼈던 여인 레히나를 잃고 나서 꼬루스는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실력자들을 상대하면서 능란한 처세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점차 젊은 시절의 이상과 영웅주의를 버리고 사랑과 우정, 행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혁명 기간 동안 포착한 치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꼬루스는 권력을 얻고 온갖 사기행각과 권력남용, 뇌물수수를 통해 출세가도를 달렸다.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까에스의 집권기 이래 승승장구하여 꼬루스는 대지주, 사업가, 연방 하원의원, 언론사주, 미국 자본가와 손잡는 사업가로 변신을 거듭했다. 그러는 사이 그는 여러 여인을 거치지만 사랑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 가면서 우리에게 변질된 멕시코혁명의 표상으로 다가와 ‘희생’과 ‘생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준다. “비천한 신분”의 혼혈인 꼬루스는 마치 그의 선조인 16세기 초 에스빠냐 정복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과거를 뒤로 한 채 화려한 외양을 좇았던 것이다. 베라꼬루스에서 시작하여 수도 멕시코에서 끝나는 꼬루스의 출세 여정은 정복자들의 침투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꼬루스는 그의 ‘아버지’가 탐욕을 채우려 나아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셈이다.

1924년 연방 하원의원이 된 꼬루스는 반민족적 언사를 통해 멕시코의 ‘민족주의적 혁명’을 훼손시킨다. “코커리 씨, 이 모든 사실을 미국 본사에 타전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내 언론을 동원해서 멕시코의 공산주의 철도노동자들에 대항하도록 말입니다. … (현재) 멕시코 정부는 집권 경험이 없는 탓에 아직도 서투른 점이 많으니 귀국 대사와 협의해서 멕시코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세요.” (157) 또한 1927년 꼬루스는 혁명이 이룩한 노동개혁의 위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정부 고위관리에게 파업 가담자들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조언한다. “분명한 방도는 파업을 무효로 선포하고, 파업자들을 모두 군대에 입대시켜 몽둥이로 늘씬하게 패서는 몇몇 우두머리를 감방에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차관 양반” (182, 187) 그런가 하면 1950년대 중엽 언론사주로서 꼬루스의 비열한 행각은 다음 대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너의 비서 빠디야가 사무실에 들러서 인디오들이 선동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네게 알려 줄 것이며 너는 빠디야를 통해 그 인디오들의 공유지 관할 경찰관에게 인디오들을 납득시키도록 일러 보낼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일을 위해 너는 그에게 돈을 주게 된다. … 너는 사회문제를 다루는 신문기 고가를 불러서 소노라의 사업에 대해 너에게 애를 먹고 있는 꼬우또라는 자를 중상하는 기사를 칼럼에 신도록 그에게 명령할 것이다.” (21)

이렇듯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야욕을 채우려는 꼬루스에게 부인 까딸리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당신께서 원하던 것을 이제 당신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제 만족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요. … 나를 그만 놓아 줘요.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 … 그건 당신 승리의 전리품 중 일부예요. … 당신이 우리 오빠를 죽였어요. 오빠는 죽었고, 당신은 여기에 있어요, 그것도 잘 살아서 그의 상속 재산을 이용하고 있어요.” (146-148)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아직도 사랑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당신은 외부 세계에서 꿈과 순진성을 상실했어요. …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예요.” (150-151) 또한 꼬루스는 가끔씩 에스빠냐 내전에서 사망한 아들 로렌소가 자신을 심문조로 노려보는 시선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면서 꼬루스는 돈이 없어도 그를 따르고 사랑했으며 천대받는 처지에서도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친 첫사랑의 여인 레히나를 때로는 그리워하고(160-161) 젊은 여인 릴리아와 한때를 보내기도 하지만(198) 결코 “고독한 해변의 노년, 현세의 고통”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다. (23)

이러한 꼬루스의 삶을 통해 푸엔테스가 그리는 멕시코혁명의 초상은 어떤 것일까? 푸엔테스는 멕시코판 “강도귀족” 꼬루스의 파란을 들여다보면서 부서지고 금이 간 혁명, 더 이상 혁명이기를 멈춘 멕시코혁명의 비극적 모순을 구체화한 것이다. 혁명군 장교 출신 꼬루스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푸엔테스는 멕시코인을 배반한 혁명과 집권 제도혁명당(PRI)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던진 것이다. 푸엔테스에게 꼬루스는 혁명의 도덕적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 멕시코 지배계급을 대표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멕시코혁명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탁월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어느 프랑스 작가에 따르면 이 작품의 중심주제는 “결코 영웅시될 수 없는 혁명가, 비열한 출세주의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인 아르테미오 꼬루스로 대변되는 멕시코의 지배층에 의해 ‘배반당한’ 멕시코 그 자

9) 이성형, “멕시코혁명 80주년에 부쳐,” 창작과 비평(70), 제18권 4호, 1990, 398쪽.



체”인 것이다.<sup>10)</sup> 이 소설은 꼬루스가 죽음을 맞이하는 1959년에서 끝나고 있지만 푸엔테스는 “제도화된 혁명”의 파산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1968년 10월 2일 플라렐로코 학살에 앞서 경제적 성과의 불균등한 분배와 관료층의 부패에서 드러나는 혁명의 변질과 “실패,” 그리고 제도화의 허구성에 대해 폭로한 셈이다.<sup>11)</sup>

### III. 멕시코혁명의 파노라마

#### III.1. 포르피리아또: “발전에反하는 성장”(growth against development)<sup>12)</sup> 과 혁명의 발발

1876년 ‘재선반대’라는 가치를 내걸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그 자신이 35년 뒤 똑같은 구호를 내세운 마데로에 의해 밀려날 때까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디아스는 초기의 자유주의적 면모로부터 서서히 이탈하면서 경찰력에 기반한 정치권력의 집중화, 미개척지(terrenos baldíos)와 수자원, 철도의 개발을 통한 농업의 상업화, 외국 기업과 소수의 측근에 대한 특혜 제공, 특정세력의 정치적 배제 등을 통해 과두제배 체제를 다져갔다. 디아스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외국 기업에 철도나 기타 용도로 광범한 토지를 공여했지만, 대다수 멕시코인들은 빈곤에 허덕였다. 결국 농업의 상업화와 정치적 중앙집권화는 1906년 소노라의 카나베아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뿐만 아니라 1910년

10) 김창환, “카를로스 푸엔테스와 《아르테미오의 최후》,” 카를로스 푸엔테스 (김창환 역), 『아르테미오의 최후』 (서울: 지학사, 1987), 419쪽.

11) 플라렐로코 학살 사건이 멕시코혁명의 파산과 당시 체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그 비극 이전에 이미 ‘혁명의 죽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Stanley R. Ross, ed., *Is the Mexican Revolution dead?*, (New York: Alfred A. Knopf, 1966) 참조. Alejandro del Palacio Diaz, *Agonia y muerte de la Revolución Mexicana: el triunfo del sistema* (México, D.F.: Claves Latinoamericanas, 1986).

12) John H. Coatsworth, *Growth Against Development: The Economic Impact of Railroads in Porfirian Mexico*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1).

말 거센 전국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1908년 2월 디아스는 제임스 크릴맨이란 미국기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 선출을 둘러싼 공방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여망을 촉발시켰다. 이 면담에서 디아스는 1910년 6월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1909년 3월 그의 측근들에 의해 다시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었는데 이는 북부 코아윌라의 아센다도 가문 출신 프란시스코 마데로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배제되었던 마데로는 1910년 4월 재선반대당(Partido Anti-Reeleccionista)을 조직하여 디아스에 도전했다. 1910년 대통령 선거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얼룩졌고 마데로는 ‘혁명의 출생신고서’ 산 루이스 포토시 강령을 통해 멕시코 민중에게 무장궤거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전반적으로 정치적 선전의 성격이 강했지만 강령의 제3조에 “불법적으로 획득한 모든 토지는 조사되어야 하고 법의 남용에 의해 취득된 모든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이라 명시함으로써 ‘개혁시대(La Reforma)의 전통에서 혁명으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농업개혁 공약을 첨가했고, 이는 마데로의 투쟁대열에 모렐로스의 공동촌락 지도자 에밀리아노 사파타를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다.<sup>13)</sup> 하지만 마데로는 혁명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지는 못했다. 1912년 어렵사리 대통령이 되었으나 개혁의 추진이 지지부진했고, 1913년 2월 “비극의 10일”에 디아스식 통치를 부활시키려는 빅토리아노 우에르타 일파에게 피살되고 말았다.

“외국인을 위한 정부”를 이끌었다는 디아스까지도 멕시코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다. “가련한 멕시코여, 신과는 너무도 멀리에, 그러나 미국과는 너무도 가까이에 있구나.” 이러한 수사적 표현보다 더욱 간절하게 가난한 멕시코인의 고통을 대변한 인물은 에밀리아노 사파타와 프란시스코 판초 비야이다. 혁명을 주로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한 마데로와 결별한 뒤 사파타는 아얄라 강령(Plan de Ayala, 1911년 11월 25일)을 통해 무엇보다 급진적인 토지개혁의 실시를 주장했다. 아센다도, 과학파, 지방토호(cacique)들이 강탈한 토지와 수자원을 촌락민들에게 반환할 것(6조), 촌락민들이 에히도(ejido), 개척지(colonia), 공동촌락의 기반 위에서 복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독점토지의 1/3을 유상 몰수(7조), 강령에 반대하는 혁명의

13) 줄고, “멕시코혁명기(1910-1920) 사빠타 운동(Zapatismo)의 성격,” 서양사연구 제 16집, 1994. 17쪽.

적들의 재산을 국유화, 그 중 2/3는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한 보상에 사용할 것(8조) 등으로 구체화했던 것이다.<sup>14)</sup> 농촌의 교사와 도시출신 지식인들과 함께 사파타는 혁명기 내내 공동촌락민들의 “토지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이끌면서 혁명에 진한 흔적을 남겼다. 한편 비야는 가장 강력한 군사조직인 “북부사단”을 기반으로 “산지인(serrano)”의 운동을 이끌면서 이질적인 북부의 민중을 지휘한 “대장” 내지 “군벌(caudillismo)”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했다.

### III.2. 입헌파(Constitutionalistas)의 승리와 개인 통치의 강화

우에르타의 쿠데타 직후 마데로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베누스티아노 까란사는 과달루페 강령(1913년 3월)을 통해 재선반대파 출신 북부지방의 독립소농과 상인들을 규합하면서 입헌파의 투쟁을 진수시켰다. 동시에 그는 “혁명의 수장”(el jefe primero)이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뒤에는 독일군의 침투를 사전에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이 베라크루스항을 점령했는데, 이를 계기로 1914년 7월 우에르타가 퇴진했다. 곧이어 “승자들의 대결”이 펼쳐지면서 멕시코혁명은 그 강도를 더해 갔다. 소설 속에서 꼬루스가 가담하게 되는 입헌파는 초반엔 사파타와 비야 세력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했다. 하지만 베라크루스에 터를 잡은 입헌파는 점차 전국으로 세력을 확대했고 1915년 판초 비야의 북부사단을 셀라야 전투에서 격퇴하고 다음으로 사파타운동을 모렐로스에 국한시키는데 성공했다. 1917년 2월 반교권주의, 토지 및 농업개혁, 노동개혁, 모든 선출직의 재선금지 등 혁명적 수사와 아울러 개혁적 내용이 담긴 헌법을 공포한 뒤 까란사는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통치자’로 법률적 승인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까란사는 쟁쟁한 혁명파 장군들을 배제시킨 채 무명의 민간인 이그나시오 보니아스(Ignacio Bonillas)를 후계자로 지명함으로써 군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알바로 오브레곤(Alvaro Obregón)의 군사반란으로 암살당하고 말았다. 1920년 12월 오브레곤이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뒤 이른바 “소노라 왕조” 시대가 개막되었다. 혁명은 디아스 체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꼬루스를 비롯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촉진시켰다. 혁명 당시 디아스 체제는 70-80대 노인들이 주

14) *ibid.*, 22쪽.

축이 된 완고한 구식 체제였던 것이다. 오브레곤, 까에스, 라사로 까르데나스 등 30-40대의 젊은 세대가 혁명 후 체제의 지도자로 부상하여 사회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민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중앙집권적 통합 정책을 전개했다. 한편 사파타가 암살(1919년 4월 10일)당한 뒤 사파타운동은 오브레곤파에 합류하여 자치의 이상을 실현하지는 못했으나 혁명 후 체제의 농업개혁에 영향을 미쳤고 1920년대 혁명 정신을 고양시키려는 국가적 사업을 통해 혁명의 상징으로 다시 등장했다.<sup>15)</sup>

혁명이 끝난 후에도 대통령직 계승을 둘러싼 정치투쟁과 군사 반란이 1923년, 1927년, 그리고 1929년에 이어졌으나 오브레곤이 암살당한 뒤 권력의 공백기에 까에스를 주축으로 혁명 정당(PNR)을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의 틀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반교권주의와 '사회주의 교육'에 반발한 가톨릭 세력이 서부 로스 알토스 지역(*los altos*: 할리스코, 미초아칸, 게레로 등)을 중심으로 프리스테로스(*los cristeros*)의 난을 일으켰으나(1926-29), 혁명의 세속화 경향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합전략은 더욱 가속되었다. 오브레곤 사후 권력의 중심은 자연스레 까에스로 이동되었는데 까에스가 대통령 임기 후에도 막강한 권력을 유지한 채 정국을 좌우했던 막시마토(*el maximato*, 1928-1934)는 개인 통치의 전형이었다. 이는 멕시코판 “이중권력”을 낳았으며 혁명 실종의 조짐을 서서히 드러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프루스는 까에스와의 연줄을 이용하여 지역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연방 하원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 III.3. 까르데나스체제(*cardenismo*)

멕시코혁명을 1940년까지 30년에 걸친 변화로 이해하는 것은 라사로 까르데나스의 집권기를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까르데나스는 집산적인 토지개혁, 노동입법과 조직화, 석유 국유화를 통해 1920년 이후 “깊은 잠 속에 빠져든” 혁명을 다시 깨운 인물로 평가되어 왔다. 라사로 까르데나스는 재임기 동안 약 1,800만 헥타아르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물론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집단농장인 에히도(*ejido*)에 수여한 것이었지만 이는 1920년 이후

15) Arnaldo Córdova, *La ideología de la Revolución Mexicana: La formación del nuevo régimen* (México, D.F.: Ediciones Era, 1973), 154-155쪽.

그의 전임자들이 분배한 토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약 두 배가 많은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까에스 통치기와는 달리 까르데나스체제는 혁명의 이상과 실제의 괴리를 좁히고 철도(1937)와 석유자원의 국유화 정책(1938)을 통해 혁명적 민족주의를 고양시켰으며 이른바 “내부지향적 발전”(desarrollo hacia adentro)의 토대를 닦았다. 또한 까르데나스는 에스빠냐 내전기에 파시스트 반대 투쟁을 벌이다가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스탈린에게 밀려난 레온 트로츠키에게도 피신처를 제공한 바 있다.

이러한 업적 때문에 기존 연구서들은 대체로 1940년 이후 멕시코의 정치적 궤적이 까르데나스로 대변되는 혁명의 급진적 국면과 얼마나 대조적인 양상을 띠는가를 지적해 왔다. 즉, 그들은 1940년을 “제도화된 혁명”이 그 급진성을 탈각하고 뚜렷하게 방향을 선회한 전환점으로 이해한 것이다.<sup>16)</sup> 또한 석유 국유화나 토지개혁의 강력한 추진자로서의 까르데나스의 면모가 대중의 기억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에도 너무도 분명하게 각인되었기에<sup>17)</sup> 그의 시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여타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까르데나스체제가 그 목표와 정책, 혹은 실제적 성과의 측면에서 얼마나 급진적이고 지속적이었는가란 제한적인 질문에 불과하다. 까르데나스 시기는 초기의 급진적 개혁정치에서 말기의 온건한 현실정치로 변모했다. 석유 국유화조치 이후 마지막 두 해는 후임자 마누엘 아빌라 카마초(Manuel Ávila Camacho)의 온건 노선을 예시해 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까르데나스는 여러 혁명 세력을 개편된 지배 정당에 통합시켜 민중주의적 발전전략을 지속하는 동시에 중앙집권적 일당 체제를 공고화했다. 당 내에 광범위한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막강한 군 세력을 그 한 축으로 흡수함으로써 결국 오랜 군의 정치적 지배를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다. 더욱이 대통령 임기모란 한정시켰던 까르데나스의 활동을 1945년까지 확대시켜 퇴임 후 군의 고위 지도자로서 그가 유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까르데나스체제가 지녔던 또 다른 성격을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16) Howard F. Cline, *Mexico: Revolution to Evolution, 1940-196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231-233쪽. Stanley Ross, ed., *Is the Mexican Revolution Dead?* (New York: Alfred A. Knopf, 1966).

17) Fernando Benítez, *Lázaro Cárdenas y la Revolución Mexicana III: El cardenismo*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77). Adolfo Gilly, ed., *Tres imágenes del General* (México, D.F.: Taurus, 1997), 57쪽.

점에 비추어 우리는 까르데나스 시기를 여러 저작들이 규정한 것과 같이 멕시코혁명의 종장이 아니라 향후 일당 해계모니체제의 형성 단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sup>18)</sup>

## IV. 1940년 이후의 멕시코: “혁명 길들이기”<sup>19)</sup>와 “영원한 혁명”

### IV.1. “혁명 길들이기”: “혁명에서 진화로”(1940-1960)<sup>20)</sup>

멕시코혁명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한 지도자로 까르데나스를 부각시킨 그 동안의 동향을 반영하듯 혁명과 그 성과를 다루는 여러 연구서들의 호홉은 대체로 1940년에서 멈춘다. 니블로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까지 역사가들의 저술을 보면 마치 멕시코의 역사가 1940년에서 중단된 듯” 보이기까지 한다.<sup>21)</sup>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1940년을 기점으로 후속 시기에는 그 이전과는 판이한 정치·경제적 흐름이 전개된다는 결론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적, 농업적 성격이 강한 민중 중심의 사회혁명으로 멕시코혁명을 규정하는 고전적 해석이나 혁명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정치 운동, 혹은 다양한 색채를 띤 여러 지역의 저항, 또는 중앙집권적 정치세력의 등장과 연결시키는 수정주의적 해석 모두 1940년을 결정적 단절의 시점으로 파악하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물론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에서 푸엔테스는 혁명의 변질이 194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약 10년 동안의 무장투쟁 과정이 포르피리아또라는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체제를 열어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단계였지만 어떤 측면에선 수많은 지역 우두머리들의 활동 폭을 넓혀 줌으로써 혁명의 대의보다는 권력 장악과 사적 이익 추구에 매진하는

18) 줄고, “연장된 까르데나스체제: 라사로 까르데나스(Lázaro Cárdenas)와 멕시코 정치의 탈군사화, 1938-1945,” 서양사론 제72호, 2002, 102쪽.

19) Thomas E. Skidmore & Peter H. Smith, *Modern Latin America* (5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17쪽.

20) Cline, op.cit.

21) Stephen R. Niblo, *Mexico in the 1940s: Modernity, Politics, and Corruption*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1999), xvii쪽.

꼬루스 류의 인물들을 배양시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혁명이 변화 단계에 접어들었는가라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까르테나스의 집권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꼬루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그 폭과 깊이를 더해 가는데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불가피하게 혁명의 가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 1) 까르테나스 말기 이후의 온건 노선

이제까지 많은 연구서들은 아빌라 카마초의 등장과 더불어 멕시코 정치의 행로는 온건 선회한 뒤 앞선 시기의 혁명적 노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1940년대 초 멕시코의 정치적 환경이 1930년대 중엽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1940년 선거기간 동안 아빌라 카마초는 “국민 통합, 친연합국 정책, 산업화”를 핵심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sup>22)</sup> 아빌라 카마초는 국민 통합이라는 구호 아래 보수적인 정치적, 종교적 집단까지 끌어들이므로써 지지층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이 돌입한 유럽과 아시아의 전황은 이전의 관행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미국과 멕시코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일본의 침략 위협에 맞서 미국과 멕시코는 1941년 11월 상호방위의 필요성에 합의했고 곧 이는 미국과 멕시코 합동방위위원회의 성립으로 구체화했다. 양국의 선린 협력은 1943년 4월 루즈벨트의 몬테레이 방문과 뒤이은 아빌라 카마초의 텍사스 해군기지 시찰로 절정에 달했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1938년 3월 멕시코의 석유 국유화로 인해 발생한 미국회사들의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할 것과 멕시코의 균형지출을 위한 경제적 협력, 멕시코의 전시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sup>23)</sup>

22) Luis González y González, trans. by John Upton, *San José de Gracia: Mexican Village in Transi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4), 217-218쪽. *El Nacional*, 12 de diciembre, 1940, 1, 7쪽, 18 de diciembre, 1940, 4쪽.

23) *El Universal*, 21 de abril, 1943, 1, 4쪽. 멕시코주재 미국대사 조시푸스 대니엘스(Josephus Daniels)가 까르테나스 집권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리하여 몬테레이와 코푸스 크리스티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된 아빌라 카마초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회담은 1910년 혁명 후 최초로 이루어진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었다. José Guillermo Morales. *Unión de dos pueblos: la entrevista de Monterrey* (México, D.F.: Prensa Asociada Mexicana, 1943). 37, 48쪽.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빌라 카마초 행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 이미 까르테나스 통치 말년의 온건한 정책을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혁명 정당 개편 후 까르테나스의 임기 마지막 두 해에는 개혁정책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1937년 이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보수세력의 압력이 커짐에 따라 까르테나스는 급진적 개혁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말하자면 조정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까르테나스는 토지분배의 속도를 늦췄고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인 파업을 멈추고 애국적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sup>24)</sup> 그는 보수세력과의 충돌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더 큰 파국에서 멕시코를 보호하기 위해 혁명적 흐름을 “동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멕시코시 주재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이던 베티 커크(Betty Kirk)는 이를 가리켜 “극단적 급진주의와 결별하고 본래의 혁명적 가치를 회복시킨 제2의 혁명”이라고 언급했다.<sup>25)</sup> 이러한 온건선회는 결국 1940년 선거에 대비한 대통령 후보지명에서 온건파 장군 아빌라 카마초를 지원하는 것으로 뚜렷해졌다. 까르테나스체제는 1938년초 이후 이미 온건 노선으로의 전환을 통한 공고화 단계, 즉 1945년까지 “연장된 까르테나스체제”에 돌입했던 것이다.

## 2) 효율적인 중앙집권 통치

독립이래 전통적인 권력의 원천이었던 교회는 혁명을 거치면서 이미 1920년대에 크게 약화되었고 군대는 1930년대 말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민간 관료의 효율적인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 멕시코 정치의 탈군사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선 시기에 비해 ‘혁명 가족’ 내의 분열 양상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사회혁명이 지닌 하나의 역설은 혁명기의 민중동원과 사회경제적 변혁이 대부분 정치권력의 확대와 집중,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통치로 귀결된다는 것인데, 특히 1940년대 이후 멕시코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sup>26)</sup>

24) James W. Wilkie & Edna Monzon de Wilkie, eds., “Marte R. Gómez, Agrarista,” *México visto en el siglo xx: entrevistas de historia oral* (México, D.F.: Instituto Mexicano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1969), 134쪽.

25) Betty Kirk, *Covering the Mexican Front: The Battle of Europe Versus America*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42), 233쪽.

26) Kevin J. Middlebrook, *The Paradox of Revolution: Labor, the State, and Authoritarianism in Mexico*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1-2쪽.



이 시기 정치적 안정의 열쇠는 효율적인 승계 메카니즘이었다. 아울러 정치적 요구 사항을 대중 조직(corporation)과 권력 당국의 중재 내에서 제기하고 합의할 수 있는 통로의 제도화가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이런 협상의 규칙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다시 말해 멕시코의 민중주의 체제는 대체로 합의에 기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강제에 의존하기도 했는데, 1958년 발생한 철도 및 공공부문의 파업과 멕시코 노동총연합(UGOCM, General Union of Workers and Peasants of Mexico)이 북부지방에서 주도한 토지 습격사건에 대한 정부의 진압,<sup>27)</sup> 그리고 1962년 5월 모렐로스의 전설적인 농민운동 지도자 루벤 하라미요(Rubén Jaramillo)의 피살<sup>28)</sup>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 IV.2. “멕시코의 기적”: “산업화된 혁명”

1940년대 초부터 길게는 1982년까지, 짧게는 1968년까지 “멕시코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고도 성장 시대가 펼쳐졌다. 이 시기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presidencialismo*)의 공고화를 통한 정치적 안정,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시기로 요약될 수 있다.<sup>29)</sup> 특히 1968년 전세계적인 저항의 물결과 활발한 학생운동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멕시코에선 두드러진 충돌이 없는 “사회적 평화” 시기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멕시코는 정치적으로 개인주의적 도구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온건한 권위주의 체제를 이룩했으며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보여지듯이 반대세력에 대해 노골적인 억압과 배제가 아니라 대체로 발탁과 통합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sup>30)</sup> 어떤 이는 이를 통해 “일당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한다.<sup>31)</sup> 하지만 1968년

27) Héctor Aguilar Camín & Lorenzo Meyer, trans. by Luis Alberto Fierro, *In the Shadow of the Mexican Revolution: Contemporary Mexican History, 1910-1989*,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3), 200쪽.

28) Donal C. Hodges, *Mexican Anarchism after the Revolution*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5), 53-67쪽.

29) Aguilar Camín & Meyer, op.cit., 199쪽.

30) Wayne A. Cornelius, *Mexican Politics in Transition: The Breakdown of a One-Party-Dominant Regime* (La Jolla: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CSD, 1996), 24-25쪽.

이후 1982년까지 “멕시코의 기적”은 사라지고 혁명 이후 유지되어온 사회적 협약의 생명이 서서히 종말을 고한다.

1) 1947년과 1955년: 미겔 알레만(Miguel Alemán)의 등장과 산업화

1946년 선거에서 장군의 아들이자 민간인 출신인 미겔 알레만이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장군이나 장군의 대리자가 멕시코의 대통령직을 독점했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아빌라 카마초는 그의 감격을 이렇게 술회했다.

이제 대학졸업자가 대통령이 되다니 이렇게 좋은 일이! 난 내가 군인인란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장군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난 민간인들이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앞으로 멕시코는 더 나은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sup>32)</sup>

다시 말해 멕시코 정치의 탈군사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가르테나스와 아빌라 카마초의 효과적인 탈군사화 정책은 후속 시기에 멕시코의 정치가 군부의 빈번한 개입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는 여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게 만든 원동력이었다.<sup>33)</sup>

또한 알레만은 지배 정당을 제도혁명당(PRI)이라고 개칭했으며 “자본 축적과 경제적 진보”를 최우선적 과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 계획을 실시했다. 그루스가 관광지 아카폴코 해변에서 젊은 여인 릴리아와 즐기게 되는 1948-1951년 사이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2%였고, 특히 농업 생산의 경우는 10.4%에 이르렀다. 관개와 수력발전, 도로 및 호텔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전개했고 관광지 개발에 힘써 관광 대국의 토대를 마련

31) Frank R. Brandenburg, *Mexico: An Experiment in One Party Democrac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56).

32) Jaime Torres Bodet, *Memorias: Años contra el tiempo* (México, D.F.: Editorial Porrúa, 1969), 442쪽.

33) 볼리비아(1952), 브라질(1954), 과테말라(1954), 아르헨티나(1955), 파나마(1955), 콜롬비아(1956), 아이티(1956), 니카라과(1956), 온두라스(1956), 베네수엘라(1958) 등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1950년대 군부의 쿠데타나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Edwin Lieuwen, *Arms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55-56쪽.

했다. 한편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행정관료 기구를 확대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알레만 통치기를 까르데나스체제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알레만의 뒤를 이은 아돌포 루이스 코르티네스(Adolfo Luis Cortines) 대통령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제2차 대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유지되고 있던 고인플레이션 정책을 수정하여 이른바 “경화” 저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했다. 1954년 폐소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멕시코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자 애썼으며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과의 제한적인 교역으로 인해 밀수가 성행하고 관료층의 부패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은 또르띠야를 만들기 위해 밧돌로 옥수수를 가는 데에만 하루 평균 8-9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 2) 1959년: 혁명의 진자는 다시 왼쪽으로

고루스가 병상에 누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게 되는 1959년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냉전 대립이 더욱 고조되는 시기였다. 1959년 1월 쿠바혁명을 성공시킨 지도자들은 점차 미국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 세력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 일으켰다. 1958년 12월 권좌에 오른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Adolfo López Mateos)는 40대의 젊은 대통령으로 까르데나스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토지개혁에 착수하여 약 1,200만 헥타아르를 분배하고 토지 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도 늘렸다.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 퇴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공공보건 정책이 강화되었고,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저가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발전산업과 영화산업을 국유화했다.<sup>34)</sup> 외교분야에서도 이러한 개혁적 성향이 유지되었는데, 멕시코는 1962년 쿠바가 미주기구(OAS)에서 축출 당한 뒤에도 유일하게 쿠바와 단교하지 않은 나라로 남게 되었다.

34) 혁명 발발 50주년을 맞이한 1960년에 멕시코의 도시인구는 처음으로 농촌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Meyer & Sherman, op.cit, 652-655쪽.

## V. 나가면서: 혁명사 연구 동향의 변천과 1982년 경제 위기 이후

혁명의 시기를 구분하고 성격을 따져 보는 것은 기실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혁명을 파악할 것인가라는 다소 정치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최초의 멕시코혁명사 서술은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리하여 혁명에서 승리한 입헌파나 ‘소노라 왕조’를 주축으로 한 친혁명파의 해석은 정통해석으로 자리매김했고 혁명을 엘리트적, 권위주의적, 사대주의적인 디아스의 구체제에 대한 “민족주의적이고 농업적 성격을 띤 민중운동”으로 규정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실제 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주목을 끌었던 사파타 운동은 혁명 후 정권의 적극적인 전략으로 멕시코혁명의 대표주자로 부각되었다. 혁명 신화의 주역으로 재탄생한 것이다.<sup>35)</sup> 프랭크 탄넨바움의 『멕시코의 농업혁명』을 위시한 1920-30년대 미국 학계의 연구도 이런 경향의 확대에 기여했다.<sup>36)</sup>

친혁명파 해석의 권위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이 가해진 것은 1968년 사태를 전후로 한 시기였다. 이때 등장한 것이 이른바 “좌파 수정주의적” 해석인데,<sup>37)</sup> 대표자인 아르날도 코르도바나 아돌포 히이는 제도화된 혁명이라는 “신화”에 반발하면서 정치적으로 새로운 민중세력의 연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여러 부분의 혁명 투쟁으로 탄생한 국가권력이 대중을 포섭하는 새로운 통합 메커니즘을 제도화했음에 주목했다. 이것이 가르데나스체제를 비롯한 민중주의 체제의 본질인데, 이 체제는 민중을 기반으로 한 체제가 아니라 민중의 독자성을 약화시키는 폐쇄적 체제로 변모했다는 것이다.<sup>38)</sup> 또한 멕시코혁명은 죽었는가라는 질문이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sup>39)</sup> 근래에는 혁명

35) Irene O'Malley, *The Myth of the Revolution: Hero Cult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xican State, 1920-1940* (New York: Greenwood Press, 1986), 113, 119쪽.

36) Frank Tannenbaum, *The Mexican Agrarian Revolu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9). Eyley N. Simpson, *The Ejido: Mexico's Way Out*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37).

37) Córdova, op.cit. Adolfo Gilly, trans. by Patrick Camiller, *The Mexican Revolution* (London: Verso, 1983). 이성형, “멕시코혁명사 연구에 있어서 좌파 수정주의적 해석,”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제1집, 1990, 8-9쪽.

38) Arnaldo Córdova, *La política de masas del cardenismo* (México, D.F.: Ediciones Era, 1974).

39) Ross, op.cit. Alejandro del Palacio Diaz, *Agonía y muerte de la Revolución*

기 여러 지역의 다양한 투쟁 양상, 까르테나스 체제를 비롯한 혁명 후 체제의 통합 프로젝트와 그에 대한 각 지방의 반응, 특히 교육과 종교, 원주민 정책에서 나타나는 정부의위로부터의 민족주의적, 문화적 통합 전략에 각 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혁명사 연구 동향의 변천은 물론 시대적 상황 변화와 맞물려 있다. 1982년이래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는 새로운 개혁의 추진은 20세기 멕시코 역사에 또 하나의 혁명을 추가하게 되었다. 1982년 제1차 경제 위기 직후 멕시코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안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고 GATT에 가입(1986)하면서 관세장벽을 낮추고 무역시장을 개방했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체로 이전의 국가주도 관리체제와 “멕시코인을 위한 멕시코” 정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특히 1988년 12월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Carlos Salinas de Gortari) 정권의 등장으로 가속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반국가중심적(Anti-Statist) 혁명”의 면모를 드러냈다.<sup>40)</sup> 이와 같은 변화는 단지 자유주의적 경제 원리의 도입을 통한 위기 극복의 차원이 아니라 혁명 후 1920-30년대를 거치면서 틀을 갖추고 두 세대 이상 지속되어 온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동안 국가주도의 관리 체제 속에서 파생된 비효율성과 부패구조의 척결뿐만 아니라 오랜 일당 지배 체제에 큰 균열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었다.

---

*Mexicana: el triunfo del sistema* (México, D.F.: Claves Latinoamericanas, 1986).

- 40) 어떤 측면에선 살리나스의 전환이 거의 1세기 만에 디아스의 대외개방적 개발정책을 부활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1980년대말 이후 멕시코의 탈규제, 민영화, 세계화 전략은 여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뿐만 아니라 동유럽 구공산권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유주의 확산의 모범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살리나스트로이카”를 표방한 후 OECD 가입(199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1994), 치아파스 원주민의 봉기(1994), 또 한 차례의 폐소화 위기와 경기 침체(1994), 그리고 위기의 극복 등 일련의 숨가쁜 과정은 한국의 최근 상황과 그 궤적을 같이하기에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 【부록】

## 『아르테미오 꼬루스의 죽음』의 연대기

- ◆ 1889 아르테미오 꼬루스의 탄생 (4월 9일, Veracruz), 조산원도 없이 외삼촌 루네로의 도움으로 어머니 이사벨 꼬루스(몰라또)의 외로운 분만 (생부는 아센다도 아파나시오 멘차카) [*Porfiriato*] (pp. 408-411)
- ◆ 1903 루네로(아르테미오의 외삼촌, 역시 몰라또로서 아시엔다의 빼은)와 아르테미오 꼬루스, 아시엔다에서 탈출 [*Porfiriato*] (pp. 366-408)
- ◆ 1913 오브레곤파, 즉 입헌파에 가담한 꼬루스 중위, 레히나(혁명 시대 전 투지역에서 만난 위안부격의 아가씨로서 꼬루스가 평생동안 잊지 못함)와 만남 [Victoriano Huerta의 쿠데타(1913년 2월) 이후 극도의 혼란기, 혁명세력의 재집결] (pp. 83-123)
- ◆ 1915 빼탈 형무소에서 사갈(판초 비야군의 대령으로 산악 유격전의 명수)과 권총 결투, 꼬루스의 승리, 이 곳에서 곤살로 베르날(뿌에블라의 대지주 가말리엘 베르날의 아들로서 혁명전투에 가담, 비야군에게 생포)을 만나고 집안의 비밀을 듣게 된 아르테미오, 결국 곤살로를 이용하고 총살당하게 함 [오브레곤의 셀라야 전투 승리, 판초 비야 추적] (pp. 225-275)
- ◆ 1919 곤살로의 최후를 이야기해 주며 가말리엘 베르날과 친해진 꼬루스 중령, 가말리엘과의 거래, 까딸리나(별다른 애정도 없이 아버지 가말리엘의 권유로 꼬루스와 혼인, 평생을 갈등 속에서 살며 아들 로렌소를 낳고 가톨릭에 의지하며 그를 뒷바라지하는데 전념하며 생활)[사파타의 죽음과 까란사 정부의 몰락] (pp. 48-83)
- ◆ 1924 까딸리나와 헤어짐, 지역의 경쟁자들을 물리치는 꼬루스 [까예스(Plutarco Elías Calles) 대통령] (pp. 123-166)
- ◆ 1927 ‘똥보’와 거래하는 연방 하원의원 꼬루스 [*Maximato* (1928-1934) 시작] (pp. 166-195)
- ◆ 1934 라우라(카딸리나의 친구, 남편과는 별거 중이면서 꼬루스와 친하게 지내는 자유분방한 여인), 로렌소(꼬루스의 아들, 꼬루스는 그가 12살 때부터 베라꼬루스의 꼬꾸야 농장으로 데리고 가서 영농법, 사냥, 낚시, 승마 등을 익히게 함), 파리에 간 꼬루스 [까르테나스(Lázaro Cárdenas) 대통령] (pp. 275-298)

- ◆ 1939 친구 미겔, 돌로레스 등과 함께 에스빠냐 내전에 참가한 로렌소의 죽음 [까르테나스 대통령] (pp. 298-327)
- ◆ 1941 미국인들과의 거래 [아빌라 까마초(Manuel Ávila Camacho) 대통령] (pp. 24-48)
- ◆ 1947 아카풀코 해변에서 릴리아(크루스가 말년을 즐기기 위해 돈을 주고 얻은 아가씨로서 1947-55년 8년간 그와 동거생활)와 즐김 [알레만(Miguel Alemán) 대통령] (pp. 195-224)
- ◆ 1955 꼬요아칸 대저택(화려한 정원, 성자들의 초상화)에서 산 실베스트레 축일 기념 연회, 릴리아와 이별 [코르티네스(Adolfo Luis Cortines) 대통령] (pp. 327-365)
- ◆ 1959 멕시코시에서 과거의 추억에 잠기는 크루스, 임종을 지키는 부인 까딸리나 [로페스 마테오스(Adolfo López Mateos) 대통령] (pp. 13-24)

\* 쪽수는 김창환 역, 『아르테미오의 최후』 (지학사, 1987) 참조.

## 참고문헌

- 박구병, “멕시코혁명기(1910-1920) 사빠따 운동(Zapatismo)의 성격,” 서양사 연구 제16집, 1994, 1-37쪽.
- 박구병, “연장된 가르데나스체제: 라사로 가르데나스(Lázaro Cárdenas)와 멕시코 정치의 탈군사화, 1938-1945,” 서양사론 제 72호, 2002, 75-105쪽.
- 이성형, “멕시코혁명사 연구에 있어서 좌파 수정주의적 해석,”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제1집, 1990, 5-23쪽.
- 카를로스 푸엔테스 (김창환 역), 『아르떼미오의 최후』 (서울: 지학사, 1987).
- Bantjes, Adrian A. *As If Jesus Walked on Earth: Cardenismo, Sonora, and the Mexican Revolution*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1998).
- Beezley, William H. et als, eds. *Rituals of Rule, Rituals of Resistance: Public Celebrations and Popular Culture in Mexico*.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1994).
- Brown, Lyle C. “Cárdenas: Creating a Campesino Power Base for Presidential Policy”, in Wolfskill, George and Douglas W. Richmond, eds., *Essays on the Mexican Revolution: Revisionist Views of the Leader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9), 102-136쪽.
- Brunk, Samuel. *Emiliano Zapata: Revolution and Betrayal in Mexico*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95).
- Camín, Héctor Aguilar & Lorenzo Meyer, trans. by Luis Alberto Fierro, *In the Shadow of the Mexican Revolution: Contemporary Mexican History, 1910-1989*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3).
- Córdova, Arnaldo. *La ideología de la Revolución Mexicana: La formación del nuevo régimen* (México, D.F.: Ediciones Era, 1973).
- Cornelius, Wayne A. *Mexican Politics in Transition: The Breakdown of a One-Party Dominant Regime* (La Jolla: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CSD, 1996).
- Fuentes, Carlos. *A New Time for Mexic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 Garrido, Luis Javier. *El Partido de la Revolución Institucionalizada: Medio siglo de poder político en México. La formación del nuevo estado (1928-1945)* (México, D.F.: Siglo veintiuno Editores, 1986).
- Hart, John M. *Revolutionary Mexico: The Coming and Process of the Mexican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 Knight, Alan. *The Mexican Revolution: Vol 1. Porfirians, Liberals, and Peasa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Knight, Alan. "Cardenismo: Juggernaut or Jalopy?"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6 (1), 1994, 73-107쪽.
- Meyer, Michael C. & William L. Sherman, *The Course of Mexican History*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Middlebrook, Kevin J. *The Paradox of Revolution: Labor, the State, and Authoritarianism in Mexico*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 Niblo, Stephen R. *Mexico in the 1940s: Modernity, Politics, and Corruption*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1999).
- Ross, Stanley R. ed., *Is the Mexican Revolution dead?* (New York: Alfred A. Knopf, 1966).
- Simpson, Eyler N. *The Ejido: Mexico's Way Out*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37).
- Skidmore, Thomas E. & Peter H. Smith, *Modern Latin America* (5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Tannenbaum, Frank. *The Mexican Agrarian Revolu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9).
- Vaughan, Mary Kay. *Cultural Politics in Revolution: Teachers, Peasants, and Schools in Mexico, 1930-1940* (Tucson :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7).